

## 동백 사랑 이야기

황성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번 봄에도 글렀다!

집에서 동백나무의 꽃을 피워 보려던 꿈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설 아래, 한 그루 남았던 그마저 얼어 죽은 탓이다. 아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얼려 죽인 것이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날은 무뎠어도 추웠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아래로 주저앉았다. 활짝 열린 창가에 가져다 둔 스테인리스 물통의 손잡이가 손에 찌억 달라붙는 날씨였다. 아침 햇살에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다 싶어 창밖으로 그를 내놓았다. 남쪽 지방이 본고향이니, 모처럼 매서운 겨울 추위를 맞으면 꽃봉오리가 더 쉽게 병글 것이라 여긴 게 잘못이었다. 더운 실내에서는 꽃이 잘 피지 않는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은 지 며칠 뒤였다. 하지만 근 이태를 아파트 거실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겨울 흑한 속으로 폐 밀린 그는 맥을 놓고 말았다. 얇은 플라스틱 분(盆)이 맨몸으로 버티기엔 너무 추웠다.

## 빨간 꽃송이에 빠져든 ‘콩닥 가슴’

책에서만 봐 오던 동백꽃을 처음 만난 건 여수 오동도에서였다. 대학 졸업여행길이었다. 그때 그 섬에서 상명한 이후로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뻑뻑이 들어찬 숲길을 따라 바닥을 온통 뒤덮고 있던 붉은 꽃송이들 때문이다.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노래로 위안을 삼게 되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나의 동백 사랑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로부터 시작됐다. 노랫말의 후반부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다고 했다. 2절 가사도 애절하다.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 말 못 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 가신 임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노랫말을 쓴 한산도의 본명은 ‘한철웅’이다. 그는 한때 ‘한중명’이란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유명세를 타지는 못했다. 중학생 때 축구 선수였는데, 다리를 다쳐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실의와 좌절에 빠져 꽃을 가꾸며 지냈다. 그러던 중 기타를 잡으면서 시작한 작사·작곡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실연의 슬픔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노래 <동백아가씨>는 그때 태어났다.<sup>1)</sup>

## 동백, 안방에서 극장으로 음반으로

1963년 2월, 소설가 추식(秋澍)이 쓴 라디오 드라마 <동백(冬柏)아가씨>가 동아방송(DBS)에 대박을 안겨 주었다. 요즘으로 치면 tvN의 <응답하라>

1) 정두수(2013), 《노래 따라 삼천리》,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13~214.

라...)에 비할 정도였지 않을까... 이듬해 드라마는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남쪽 섬마을의 한 처녀가 서울에서 온 대학생과 사랑에 빠져 임신을 했고, 그녀가 아기를 안고 대학생을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니, 끝내 버림받고 돌아서서 술집 여종업원으로 살아가는 신세가 된다는 비극적 스토리다. <동백아가씨>라는 영화 제목도 여주인공이 여급으로 일하는 ‘동백빠아’에서 따왔다<sup>2)</sup>고 한다. 김기(金起) 감독, 신성일·엄앵란 주연의 이 <동백아가씨>가 서울 을지극장에서 개봉됐을 당시 극장은 일대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 이철혁 편곡에 이미자가 노래한 동명의 주제가는 최루제였다.

덩달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실린 음반도 불티나게 팔렸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그런데 1968년 2월 ‘왜색’ 때문인지, 경쟁 음반사의 입김 때문인지 방송 금지가 되고, 더 이상은 음반 발매도 하지 못했다. 1975년 6월에는 정부의 ‘공연 활동의 정화 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음반 금지곡이 되고 말았다. 가사처럼 노래도 ‘멍이 들었’다. 다시 방송을 타고 음반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공연윤리위원회의 해금에 이어 방송심의위원회의 방송 금지까지 풀리면서이다.<sup>3)</sup>

## 아파트에서 동백을 꽃 피우리라

이후 <동백아가씨>를 더 자주 흥얼거리게 되었다. 내친김에 집에도 동백 화분을 돌이나 들였다. 이태 전 이맘때다.

2) 위키백과, ‘동백아가씨’, 검색일: 2016. 2. 10.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동백아가씨’,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6. 2. 10.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는 차나뭇과의 늘푸른 넓은잎 큰키나무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늦가을부터 3월 말쯤까지 붉거나 흰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특이하게, 동백은 벌도 나비도 바람도 아닌 새가 가루받이를 해준다. 꽃에 향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백은 꽃의 빛깔에 이끌려 꿀을 먹으러 온 동박새가 수분(受粉)을 해주는 조매화(鳥媒花)의 대표종이다.

동백은 육지에도 있지만, 주로 섬에서 자란다. 동쪽으로는 울릉도, 서쪽으로는 대청도까지가 북방한계선이다. 육지에서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의 동백을, 내륙으로는 전북 고창군의 선운사 경내에서 자라는 동백을 북방한계로 친다.

동백의 정절은 자못 승엄하다. 시들어 쪼그라지지 않고 선명한 빛깔을 간직한 채 꽃송이 상태로 제 발등에 똑 떨어진다. 여느 꽃들처럼 가루받이를 마치고 시들 때까지도 낙화를 거부하는 추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 나라 따라 시대 따라 다른 이름

분고장담게 아시아에서는 동백의 이름도 가지가지다. 동백이란 세한(歲寒)에도 질푸른 잎을 떨구지 않는 겨울 잣나무라는 뜻이다. 한자로는 ‘冬栢’ 또는 ‘冬栢’이라고 쓴다.<sup>4)</sup> 다만, ‘동백’이란 이름은 한·중·일 한자 문화권 3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이다.

동백의 옛 이름은 ‘산차(山茶)’<sup>5)</sup>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산차를 동백이라 하고, 그 봄에 무성한 것을 춘백(春栢)이

라고 한다. 대둔사에 이 나무가 많은데, 이를 장춘동(長春洞)이라 한다. 장춘동시권(長春洞詩卷)을 보았더니, 더러 ‘취백(翠栢)’이라 하고, ‘총백(叢栢)’이라 하기도 하지만, 산차라는 두 글자는 없으니 한탄스러울 따름”<sup>6)</sup>이라고 했다. 다매(茶梅)라는 이름도 있으나, 이는 일본이 원산인 애기동백<sup>7)</sup>을 가리킨다. 같은 차나뭇과이지만, 동백나무와는 종류가 다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동백나무를 매화와 더불어 엄한지우(嚴寒之友)라며 높이 대접했다. 호남 남중문인화의 거장 의재 허백련은 추사 김정희와 달리, 화제에서 매화·동백·대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 했고, 매화·동백·수선을 ‘삼우군자(三友君子)’라고 했다.

옛날 중국의 수·당 시대에는 동백을 ‘해류(海榴)’ 또는 ‘해석류(海石榴)’라고 했다. 해홍화(海紅花)라고 하기도 했는데, 해외에서 들여온 붉은 꽃이란 뜻이다. 신라국에서 들여왔다는 사실은 《이태백문집집주》가 말해 준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동백나무를 ‘산차(山茶)’라고 한다.

일본의 《만엽집》이나 《일본서기》에도 ‘해석류(海石榴)’란 기록이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동백나무를 한자로 ‘참죽나무 춘(椿)’자로 표기하고 ‘쓰바키(つばき)’라고 읽는다. 중국에서 ‘椿’자는 멸구슬나뭇과(전단(栴檀)과)의 향춘(香椿), 곧 참죽나무를 가리키는데, 동백과는 전혀 다른 나무다.

## 시문학의 소재가 되다

우리나라 한시(漢詩)에 동백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중 오언율시 〈동백화(冬栢花)〉이다. ‘… / 여기

4) 이상희(2004),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주)넥서스, 211.

5) 율건이는 ‘산다’라 하지 않고 ‘산차’라고 했다. 정약용 저, 정해림 역주(2005), 《아언각비·이담속찬》, 현대실학사.

6) 위의 책, 31~32.

7) 일본어로는 사잔카(さざんか·山茶花). 학명은 ‘C. sasanqua THUNB.’.

에 좋은 꽃 달린 나무 있네 / 눈 속에서도 꽃을 잘도 피우네 / 깊이 생각하니 잣나무보다 나오니 / 겨울잣나무라 함은 옳지 않구나.<sup>8)</sup>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동백의 기개를 상찬하는 내용이다.

조선시대에는 강희안의 《양화소록》 중 〈산다화〉 편에도 나온다. “우리 나라에서 심는 것은 단지 네 종류가 있는데, 단엽홍화(單葉紅花)로 눈 속에 피는 것을 세속에서는 ‘동백(冬栢)’이라 한다.”<sup>9)</sup> 그는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에서 3등급으로 꼽고 선우(仙友) 또는 산다(山茶)<sup>10)</sup>라고 했다. 그 밖에도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꽃을 피우는 그를 높이 평가한 글은 많다.

조선의 선비들 외에 현대 문인들도 많은 글을 남겼다. 1915년 음력 5월 18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질마재 마을에서 태어난 미당 서정주, 선생은 ‘선운사(禪雲寺) 고랑으로 / 선운사(禪雲寺) 동백꽃 보러 갔더니 /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 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습니다. /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하고, ‘선운사 동구(禪雲寺 洞口)’에서 동백을 못 본 아쉬움을 시로 남겼다.

##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물들이고

아시아가 원산지인 동백이 유럽에 전파된 시기는 자료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다. 그중에는 “이 나무를 18세기 말에 아시아에서 가져온 사람은 예수교의 선교사였던 카멜로 알려져 있다. 처음 들어온 것은 홀잎의

꽃이었으나, 겹잎의 꽃은 1794~1810년 사이에 들어왔다”<sup>11)</sup>라는 설이 있다. 또 17세기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선교사 G. J. 카멜(G. J. Kamel)이 항해 중 이 식물을 발견해 유럽에 소개했다는 설<sup>12)</sup>도 있다.

하지만 일본인 소설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는 “동백이 일본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것은 16세기였다. 전파한 사람은 예수교(耶蘇敎) 선교사 J. 카멜루스(J. Camellus)인데, ‘카멜리아(Camellia)’라는 동백꽃의 학명도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sup>13)</sup>이 있지만, 다소 의심스럽다.”<sup>14)</sup>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동백나무가 유럽에 전파된 시기는 16~17세기가 유력해 보인다. ‘아들 뒤마’, 곧 알렉상드르 뒤마(1824~1895)가 동백꽃을 소재로 작품을 쓴 시기가 19세기 중반임을 고려하면, 18세기 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이는 까닭이다.

유럽에 동백꽃 열풍이 분 것은 아들 뒤마 시기였다. 그가 1848년에 쓴 장편 소설 《동백아가씨(La Dame aux camellias)》는 당시 사회적으로 동백꽃 붐을 일으켰다. 소설 속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늘 가슴에 동백꽃을 달고 나타나는 창부(娼婦)였다. 그를 사랑한 지방 명문가의 파리 유학생 아르망 뒤발과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이다. 지금도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sup>15)</sup> 등으로 회자되곤 한다. 국내에서는 1948년 김자경 주연의 오페라 <춘희(椿姬)》로 처음 소개됐다.

8) … 此木有好花 亦能開雪裏 細思勝於柏 冬栢名非是. 이규보, <동백화>, 《동국이상국집》.

9) 강희안 지음, 이병훈 옮김(2009), 《양화소록》, 을유문화사, 99~101.

10) 울긴이는 ‘산차’라 하지 않고 ‘산다’라 했다. 위의 책, 159.

11) 이상희, 앞의 책, 231~232.

12) 제주 여미지식물원 홈페이지 ‘이달의 식물’, 검색일: 2016. 2. 14.

13) 랜덤하우스 출간 《영어대사전》의 ‘camellia’ 항목.

14) 시바 료타로, 《탐라기행》 재인용.

15) 트라비아타(traviata)는 이탈리아어 ‘트라비아토’의 여성형으로, ‘길을 잘못 든 여자’, ‘타락한 여인’, 또는 ‘방황하는 여인’이라는 뜻이다. 앞의 ‘라(la)’는 여성을 나타내는 정관사로, 영어의 ‘the’에 해당한다.

## 같은면서도 다른 ‘椿姫’라는 이름

그러면 아들 뒤마의 소설 《동백아가씨》는 왜 일본과 한국에서 ‘椿姫’로 번역됐을까? 그것은 이 작품이 소개된 경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椿’자를 음으로 읽으면 진(ちん)이 되지만, 훈으로 읽어 ‘쓰바키(つばき)’라고 하면 동백나무를 가리킨다. 따라서 ‘椿姫’를 진키(ちんき)나 진히메(ちんひめ)라고 음으로 읽으면 사전에도 없는 ‘참죽<sup>16)</sup> 아가씨’가 되고 만다. 그러나 훈으로 읽어 쓰바키히메(つばきひめ)라고 하면 ‘동백아가씨’가 된다.

1988년에 작고한 우리말 연구가 미승우 선생 역시 저서 《새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에서 “우리나라에는 오페라 〈춘희(椿姫)〉나 소설 《춘희(椿姫)》는 있어도, 오페라나 소설명에 ‘동백아가씨’라고 나오는 것은 없다.”<sup>17)</sup>하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글자야 어떻든 그 주인공이 동백꽃을 뜻하는 ‘동백아가씨’라면 그 제목은 ‘椿姫’ 또는 ‘춘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동백아가씨’가 되어야만 원명을 살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그 주인공이 가슴에 단 꽃은 ‘椿’이 아닌 ‘冬栢’이다.”라고 했다.

해방 이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처음 공연하던 당시에는 제목이 〈椿姫〉였다. 이후 1960년대 초반의 라디오 드라마와 영화, 가요에서는 〈동백아가씨〉로 바뀌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동백아가씨’가 ‘참죽 아가씨’로 둔갑하듯이 엉뚱하게 번역될 수도 있다.

16) 일본어로 참죽나무는 잔친(チャンチン·香椿)이다.

17) 米昇右(1989), 《새 맞춤법과 校訂의 實際》, (外語文閣, 261~262).

## 동백이 되어 버린 생강나무

동백의 비극은 나라 안에도 있다. 민요 〈강원도 아리랑〉은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를 마라” 하고 시작한다. 아주까리, 동백 풍년이 들면 그 기름으로 머리치장하고 나서 볼까 하는 여인들의 은근한 춘심이 담겨 있다.

아주까리는 ‘피마자’<sup>18)</sup>의 다른 이름인데, 종자가 포도송이처럼 조롱조롱 많이 달리는 게 특징이다. 종자는 42~56%가 기름 성분이며, 아주까리 기름은 예로부터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도 사용됐다. 그 역사는 신라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름 머리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상투를 틀고, 백제의 부인들이 쪽 찢 머리를 하고, 처녀들은 땀기 머리를 했다는 기록과 닿아 있다. 우리의 머릿결 가꾸기, 곧 머리치장은 머릿기름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

여성이 머릿기름으로 치장한다는 것은 여성미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다. 문제는 머릿기름의 재료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는 돌가루나 흙으로 머리치장을 하는 부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에서 그 재료를 찾았다. 들깨, 아주까리, 동백 등이다. 동백기름은 맑은 노란색인데, 변하지도 않고 굳지도 않을 뿐 아니라, 휘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쪽 찢 머리를 하던 옛 여인들은 머릿결의 윤이 돋보이는 이 기름을 애용했다. 동백기름을 바른 머리는 모양새가 단정하고 고우며, 때가 끼지 않아 최상의 미장 용품이었기<sup>19)</sup> 때문이다.

강원도는 동백이 자라지 않는 한계선 이북이라 동백 대신 생강나무<sup>20)</sup> 열매를 사용했다. 그래서 생강나무를 ‘산동백나무’, ‘개동백나무’, ‘동백

18) 蓖麻子. 대극목 대극과의 한 종. 학명은 ‘Ricinus communis L.’.

19) 이상희, 앞의 책, 224.

20) “향기가 좋아 꽃은 생화(生花)로 쓰고 가지는 약용하며 열매는 기름을 짜는 데 쓰고 어린싹은 작설차로 쓴다. 학명은 ‘Lindera obtusiloba Bl.’. 단항매, 새양나무, 아구사리라고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나무'라고도 했다.<sup>21)</sup> 물론, 생강나무는 생강과의 여러해살이풀 '생강(生薑)'과는 전혀 다르다. 녹나무과의 잎 지는 떨기나무로,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sup>22)</sup>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강원도 지역의 '동백'이 생강나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거문도와 울릉도에는 분홍 동백꽃이 있고, 홍도와 거문도에는 흰 동백꽃이 있다. 하지만, 대개의 동백꽃은 붉은색이다. 자생 동백나무에서 피는 노란 꽃은 없다. 그런데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 속의 동백은 '노랗다'.

“뒀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펴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 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소설 <동백꽃>의 끝부분이다. 작가 김유정이 이 작품을 《조광》 5월 호에 발표한 것은 1936년이다. 작가가 '노란 동백꽃'이라고 분명히 묘사한 것은 생강나무꽃이기 때문이다. 생강나무는 3~4월에 노란 꽃을 피운다. 게다가 작가 김유정은 강원도 춘천 출신이다. 김유정기념사업회 웹 홈페이지도 빨간 동백꽃이 아닌 노란 생강나무꽃으로 꾸며 놓았다.

## 동백을 사랑하게 된 진짜 계기

솔직히 동백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김유정의 <동백꽃>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은 이 소설은 '알싸하고 향긋한' 동백꽃에 취한 10대 소

21) '강원도 방언 동백꽃 이야기',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침표, 마침표>, 2015. 7. 21.

22) 위키백과, '생강나무', 검색일: 2016. 2. 14.

년의 얼굴에서 홍조가 가실 줄을 모르게 했다. 이후 <동백아가씨>를 가요로 즐기게 된 것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변성기를 맞아 목소리도 걸걸하던.

그런데 이 글을 마무리할 무렵에 기적이 일어났다! 겨울 냉해로 얼어 죽은 줄 알았던 거실 동백나무에 움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엔가 밤늦게 퇴근해서 울적한 마음으로 증얼거린 적이 있었다.

“아, 내 욕심이 너를 죽였어! 너 때문에 글을 한 편 쓰고 있는데…”

그러게 왜 그 추운 날 창문 밖에다 내놔터냐는 집사람의 핀잔이 귓전으로 스치고 있었다.

그랬는데, 화분에서 아주 뽑아 버리려던 동백이 환생한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인가.

아, 끝이 없을 나의 동백 사랑이여!